

“굳이 왜 3등 칸에 탔느냐”

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. 그가 1등 칸도 아닌 최하급 3등 칸에서 내리자 마중 나온 사람들이 “굳이 왜 3등 칸에 탔느냐”고 물었다. 슈바이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. “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더군요.”